

2월의 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 1.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
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여 잘 견디게 해주
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3.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주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사랑
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4.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시간을 회개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
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5.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고난 중
에서도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6.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
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
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께서 후원해 주셨습
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Carolina
Burnett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
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
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에 걸린 것
입니다. 췌장암 2기에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어 간암 2기가
되고 의학적으로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수술
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시작했
는데 항암치료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간의 상태가 더 악화되
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이분이 유언
장을 쓰고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
암약물 치료법으로 2차 치료를 다시 시작했는데 부작용으로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수시로 코피가 나고 얼굴과 온몸
에 종기가 돋고 구토와 메스꺼움으로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몸
무게가 10킬로 이상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도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산리기도원
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축복성회에 참석했는데 그때 제게 와
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설교 후에 “췌
장암과 간암이 치료받았다!”는 선포를 했는데 이 성도님이
12일 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보니까 간에 퍼져있던 암세
포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는 하나
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췌장의 암세포도 다 없애주신 것입
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
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
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
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
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포어
주시는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
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
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
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
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2000년 U.S.A 인디애나폴리스 성회



21세기 새천년의 시작인 2000년에는
Y2K 문제로 인해 세기말 분위기로 사이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전세계가 공포에 떨기
도 했다. 이러한 시대 풍조 속에서도 전세
계 복음화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세계
도처에서 전도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진리
를 향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
하며 신앙의 순수성은 이어졌다. 미국인들
에게 있어 미국이 가장 위대했던 시절이라
고 상징했던 2000년 DCEM은 8월 인디애
나폴리스 땅에 복음을 선포했다.

◎...미국 동북부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인디애나폴리스. 오대호 연안의 시카고 디
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등 대도시에 둘러 쌓
인 이곳은 주와 주를 연결하는 수많은 고속
도로로 인해 미국의 교차로라 불린다. 인디
애나주의 주도인 '인디애나폴리스'는 인디
언들의 땅이라는 뜻이다. 옛날 인디언들의
생활 중심지였으며 지금도 인디언 산사나
이의 전통이 남아 있는 인심 좋은 시골 풍
의 도시이다. 이곳에 8월 5일부터 12일까
지 하나의 사건으로 불릴 큰 영적 축제가
벌어졌다. 세계 하나님의 성회(WAGF) 3차
총회와 2000년 축제가 열린 것이다. 당시

WAGF 총재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1백 50
개국에서 1만여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참
여했던 성회였다. 도시는 이들로 인해 갑자
기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관광객들
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조용기 목사
는 성회를 인도했으며 각국 대표들은 3번
의 워크숍과 환희, 능력, 추수, 부흥, 믿음,
희망을 주제로 한 축제를 거행했다. 실행위
원회의, 분과별 사업결의, 기도회, 음악축
제 등으로 진행된 본 대회는 인디애나폴리
스를 미국동부지역에서 오순절성령운동을
일으키는 기반도시로 부상케 했다.

◎...조용기 목사는 2000년 축제 공식 개
막행사가 열린 8일 세계 1백 50개국의 회원
교단 총회장 1백 47명을 비롯해 대표 1만
여 명이 참가해 벌이는 국기 퍼레이드를 중
앙 단상에서 지켜보며 주관했다. 이어 9일
세계기도의 날 행사에 주 강사로 참여, 말
씀을 선포했다. 능력의 축제란 이름으로 진
행된 세계기도의 날 행사에서 조용기 목사
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
며 우리에게 ‘너희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느
냐’ 책망하고 계신다”고 말할 뒤 목표를 달
성하는 ‘힘 있는 기도’를 강조했다. 또한 누

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끈
질긴 과부의 예를 들면서 크리스천은 영적
인 전쟁이 다가올 때 사탄보다 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계기도의 날 행사에 참가한 전 세
계 대륙별 대표자들은 각 대륙과 나라별 이
슈를 소개하고 기도를 드렸으며, 많은 사람
들이 모인 RCA돔은 조용기 목사의 성령 충
만한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 올
랐다. 현지 신문들은 기도의 함성과 열기로
가득찼던 본 성회에서의 조용기 목사가 선
포한 강연요지를 보도했다. 한편, 세계하나
님의성회(WAGF)는 행사가 마친 뒤 8년간
총재직을 수행했던 조용기목사에게, 큰 연
합체로 성장 발전 시킨 공로에 감사해 총회
를 대표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본 총회와 2000년 축제는 각국 대표
를 비롯 성도 5만여 명이 매일 RCA돔을 가
득 메웠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
기까지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확
인하는 환희의 자리가 됐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인간이 가진 권세

권세의 근원은 우주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1-12)

그러면 인간이 가진 권세는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써의 권세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2. 권세를 상실한 인간

인간이 받은 권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권세자인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남용해 결국 권세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을 못하도록 특별히 명령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 넘어 사탄의 반역에 동조해 선악과를 따 먹고 절대권력자인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심판을 받고 모든 4차원의 권세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창조와 변화를 행사하는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이 4차원에 속했는데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신론자들이 되고 탐욕의 노예가 돼 버렸습니다. 또, 3차원의 물질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고 3차원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의

‘하나님이 주신 권세’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편 8편 3-9절)

노예가 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 허물, 병, 저주 그리고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영의 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세계에 속하시고 온 세상은 3차원의 세계에 속합니다. 그러나 4차원의 사람으로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중생에 따르는 권세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말씀의 권세를 사용해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가지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 이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주님은 죄를 다스림과 동시에 귀신을 쫓아 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과 힘이 센 사람은 다릅니다. 권세는 지위에 따라 오는 것이고 힘은 체력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교통경찰

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서 힘이 없지만 정부가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덤프트럭은 힘은 굉장히 세지만 교통경찰이 손가락 하나로 가리키면 바로 정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힘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으로는 대적해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귀신아,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하고 단호히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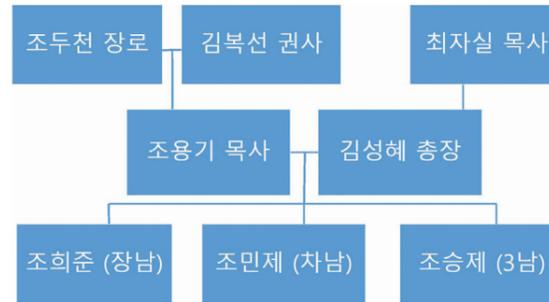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병은 내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하고 권세 있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 속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 복종해 벌벌 떠는 대신 저주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저주는 묶음을 받으라! 우리 가족, 사업체에서 묶음을 받으라! 모든 저주는 이 시간 때 떠나갈 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리므로 죽음이 다가올 때, 죽음 앞에서 벌벌 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씩은 죽음을 맞이할 터인즉 가슴을 펴고 죽음을 향해서 “올 테면 와 보라. 길을 비켜라. 나는 천국으로 간다!”라고 외치는 권세 있는 우리들이 돼야겠습니다.

여러분, 권세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알고 활용하게 될 때, 이로써 영혼이 잘되게 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범사가 잘되게 됩니다. 질병을 물어 쫓아버리고 강간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권세를 사용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권세 있는 지도를 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용기 목사님의 생애와 발자취 (1)



▲ 가족관계도



▲ 연양생가



▲ 연양초등학교



▲ 연양초등학교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5남 4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조두천 장로는 울주군 연양에서 출생해 동래고등보통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이후 부산부청(현 부산시청)에 특채돼 근무했으며 195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아들 조용기 목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며 활발한 집필활동을 펼쳐 신앙 서적들을 남겼다. 어머니인 김복선 권사도 울주에서 태어나 일생을 자녀양육에 헌신하며 시인으로 활동했다.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던 김복선 권사는 조용기 목사를 포함한 자녀 9명 모두를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신앙의 명가를 이뤘다.

학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조용기 목사는 부산 동래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했지만 부친이 민의원 선거에 낙선하여 가세가 기울자 기술자가 되려고 부산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마침 학교 근처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교장 선생님과 부대장간의 통역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7세이던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다. 소년 조용기 목사는 병문안을 온 누나의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후 미국인 켄 타이스 선교사가 인도한 부산의 천막 부흥성회에 참석해 은혜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켄 타이스 선교사는 조용기 목사의 영어실력에 깜짝 놀라며 통역을 부탁하게 됐다. 켄 타이스 선교사의 통역을 도우며 곁에서 많은 기독교 서적을 탐독했고 조용기 목사의 신앙심은 날로 깊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던 조용기 목사는 어느 날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

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고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당시 폐결핵으로 고통 중에 있던 조용기 목사는 신유체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꿈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얹으시고 ‘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내 종이 되겠느냐?’ 라고 묻자 ‘네 저를 치료해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일순간의 체험이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원의 확신을 얻어 폐결핵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날 밤 주의 종의 소명을 받은 조용기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1956년 서울에 올라와 ‘순복음신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평생의 동역자이며 장모가 된 최자실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뉴스레터 2월호에서 이어집니다.